

나를 알아 가는 여행 (3) - 삼각관계의 시초

Journey of Introspection (3) - Triangular Relationship

최 의 현 · 연세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Euiheon Choe ·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치고 불륜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지요. 또 한가지 반드시 껴야하는 것이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삼각관계는 언제 처음 시작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보다는 빠르겠지만 삼각관계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를 프로이드는 '남근기'라고 불렀는데 이때 일어나는 갈등을 가리켜 '외디푸스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길 금세기 인간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그은 것은 인간의 발달심리를 설명하는 데에 외디푸스라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연결시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시기의 복잡다양함을 설명하는데에 외디푸스 신화는 아주 적격이었던 것입니다. 외디푸스 이야기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리스-로마 신화 부분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my.netian.com/~funmyth/story/story12.html>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외디푸스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은 그가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또한 어머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3세에서 6세경의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 갖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그

가 커가면서 무의식적 잔재로 남아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본인은 그 감정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의 한 부분과 신화의 한 이야기가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디푸스 이야기를 읽어보니 다른 생각이 드는군요. 외디푸스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참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주는 스펡크스를 찾아가 그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던 의도도 그러하지만 스펡크스의 수수께끼를 알아맞출 수 있는 그의 직관력 또한 그러합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프로이드의 인간 이해에서 중요한 통찰을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과 관계하는 것과 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복잡할 지는 뻔한 것이지요? 인생의 경험에서 두 사람, 즉 어머니와 나와 관계가 주된 것이었다가 제 삼자 즉 아버지가 끼어드는 시기가 바로 3세에서 6세로 보는 '남근기' 기간입니다. 자꾸 어머니, 아버지하면 거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안계셨던 분이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입장은 마찬가지로 봅니다. 즉 3세 이전은

'주된 양육자' 한 사람과의 관계였다가 비로소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의미 있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야 태어나면서 6개월만 지나면 조금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의미 있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기는 3세에서 6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동안 한 여인밖에 모르고 살았던 남자 앞에 웬 다른 여인이 등장한 것과 비슷합니다. 남자의 외도는 '가을의 바람'이라 했던가요?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때 원래의 관계에 충실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래 3~6세의 어린이는 '갈등'을 잘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갈등을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남자는 아버지를, 여자는 어머니를 닮게 된다고 할 수 있는 지 이전 참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남자이고 여자라는 사실을 정서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마음의 결심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디푸스 갈등을 위시한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개념을 가리켜 '정신성적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진정한 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립해 가면서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세에서 6세경의 아이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사이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의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이 시기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 이야기를 하는 데에 참 설명이 길군요. 사실 삼각관계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들 거기서 탈피하고 싶어하면서도 헤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데 같은 이야기를 남들이 볼 때에는 별 거 아닐 때가 많지요. 그것만 봐도 삼각관계는 '문제'가 어려워져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악순환'에 빠져서 해결 못하는 것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악순환이 뭐니까? 그게 바로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이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것은 늘 잘하고 못하는 것은 늘 못하는 거 말이지요.

어린 시절 기억이 잘 안 나신다구요? 지금 사회생활에서 눈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도 저리지도 못하고, 삼각관계에서 갈등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3세 6세 어린이 문제와 관련이 있겠나구요? 그런 의문이나 비웃음을 해결하려면 자기를 바라보는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 '나를 알아가는 여행'인데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도 돈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듯이 자기를 알려면 조금 투자하셔야죠. 한 가지 예를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꿈 기억하시나요? 그저께 꿈은요? 일주일 전 꿈은요? 점점 더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많은 내용을 흘려보내도록 장치되어 있어서 그 많은 정보에서 머리가 터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누구는 머리 좀 터져 봤으면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정보의 잔재를 남기는 것 또한 우리 뇌의 기능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꿈을 기억하면 대부분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2주일동안 머리맡에 필기도구를 두고 일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기 시작하고 일상에서도 꿈을 회상하려고 노력하면 2주일 후에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꿈이 있었는지 놀랄 것입니다. 심리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기억을 되살리는 훈련이 포함됩니다. 그가 현재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꼭꼭 숨겨두었던 기억 저편의 과거 일들이 다시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무엇이 그 일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정서적인 무게'에 의해서입니다. 사랑

과 미움, 공포와 불안, 그러한 정서적인 면이 과거를 푸는 실마리가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질 때 자기의 과거를 되 돌아보고 조금은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개인홈페이지 : <http://member.medikorea.net/~euiheon>

세브란스병원정신과 : <http://severance.or.kr/psych/>

<최의현 전문의 : euiheon@medikorea.net>

학회지 원고 모집

《자동차공학회지》는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학회지입니다. 학회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 목 : 자유
- 원고마감 : 수시접수
- 원고매수 : A4 용지 3-5매정도 (글, 그림을 포함한 디스켓)
- 내 용 :
 - 수준 : 회원 및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
 - 형식 : 자유형식으로 집필, 참고문헌 및 수식을 생략하도록 한다.
 - 그림, 사진의 처리 : 그림, 사진 및 표를 다수 포함하여 평이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권장하며, 이의 설명은 반드시 본문 중에 하여야 한다. (원본 우송 요망)
- 원고제출
 - 하드 카피 및 디스켓과 출력본
 - 모든 그림이나 사진의 원본
: 크기와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권장함.
(메일로 보내실때는 *.jpeg, *.jpg, 포토샵파일로 저장)
 - 저자의 사진 1매, 저자의 전공 및 관심분야 등 간단한 약력 사항
-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빌딩 809호
한국자동차공학회 사무국 전화 : 02-564-3971 메일 : ksae@chollian.net

